

고대 일본의 병(病)에 관한 연구*

金賢貞**

目次

1. 머리말
2. 고대 일본의 병에 관한 신앙과 그 시대적 배경
 - 1) 고료(御靈)신앙에 대해
 - 2) 모노노케(物の怪)신앙에 대해
3. 병의 치료에 관해
 - 1) 주술과 기도
 - 2) 영매의 중요성
4. 문헌에 보이는 병
 - 1) 병의 구체적인 예
 - 2) 정치적 원인과 관련된 병의 예
5. 맺음말

1. 머리말

현대는 의학이나 과학이 대단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없고, 병의 치료에도 갖가지 의술이나 약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해 있지 않았던 옛날은 현대에 비해 병의 종류도 많았고, 그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았다. 게다가, 옛날 사람들은 병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단순했기 때문에 문헌에 남아있는 병명도 적고, 또 어떤 종류의 병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도 많았다. 또 옛날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도 의사나 약보다는 민간신앙에 의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고대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고대 일본이라고 해도 꽤 폭이 넓은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8세기부터 12세기를 중심으로 고찰해보도록 한다. 그 이유는 8세기 이전도 고대라고 불리지만, 병에 관한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12세기 이후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병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다른 경향으로 변해 가기 때문이다. 즉 12세기 경까지는 고료(御靈)신앙과 모노노케(物の怪)신앙에 의한 영향이 대단히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한 대처법도 대단히 비과학적이었으나, 점점 그런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3-B00077)

** 韓國傳統文化大學 助教授 日本古典文學·古代民俗學

경향을 탈피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8세기부터 12세기라고 하면 헤이안(平安)시대에 속하는데 이 시대는 예전부터 전해오던 병에 대한 신앙이나 인식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정착했고, 또 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들도 많은 편이므로 이 시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도록 한다.

2. 고대 일본의 병에 관한 신앙과 그 시대적 배경

1) 고료(御靈)신앙에 대해

고대 일본의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료(御靈)신앙」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고대 사람들에게 병이란 것이 신앙으로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정착되어, 일본만의 독특한 경향을 띠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료(御靈)신앙」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두려워하여, 이를 달래서 그 저주를 피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신앙을 말한다.¹⁾

원시적인 신앙에서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전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이나, 그 자손에 의해 제사지내어진 적이 없는 사령(死靈)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믿어져서, 전염병이나 기근, 그 이외의 천재지변이 생기면 그 원인은 그런 원령이나 제사지내어지지 못한 망령의 저주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신앙이 널리 믿어지게 된 것은 헤이안(平安) 시대 이후의 일인데 특히 죽은 사람의 영 중에서도 특정의 개인, 특히 정치적인 패배자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고 또 그 영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되어, 정치상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정치에 실패한 원령들이 저주를 내린다는 생각이 사회불안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료(御靈)신앙」이 반드시 명백한 특정의 역사적 인물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정체가 알려지지 않는 원령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대 일본에 있어서 병이란 것은, 정치적 음모 등 사회의 암흑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치상의 대립자의 이름을 표방하며 나타나는 원령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신앙이 정착한 것은 8세기인 나라(奈良)시대 말,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의 일로서, 전염병의 유행과 원령들의 재앙을 믿는 신앙이 결합되어서, 사람들이 그런 재앙의 원인을 정치적 패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정치적 패배자의 저주로 생각하게 된 것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이다.

이런 고료(御靈)신앙이 처음 문헌에 보이는 것은,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実録)』²⁾의 863년 5월 20일의 장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망자가 많이 생겼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원령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고 보고 계절마다 고료에(御靈會)를 열어 그 원혼을 달랬다고 한다. 그래도 역시 전염병과 재해가 잇따르자, 마침내 민간에서 뿐만이 아니고 조정에서까지 나서서 고료에(御靈會)를 열게 되었다고 쓰여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영혼이나 요괴 등이 사람에게 썩여서 갖가지 병이나 재앙을 일으킨다고 하는 생각은, 원래 헤이안(平安)시대 이전부터 일본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것이 헤이안(平安)시대 이후에 고료(御靈)신앙으로서 사람들의 민간신앙에 뿌리내리게 된 것에는, 그만큼 역사적 배경이

1) 1985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 제 6권

2) 1966 『日本三代実録』(「新訂増補国史大系四」), 吉川弘文館, 326쪽

있었다. 헤이안(平安)시대 초기, 당시에 최대의 권력을 행사하던 후지와라(藤原)씨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중상(中傷)과 계략으로 다른 씨족을 압박하고 배척했다. 황후를 폐위시키고, 황태자에게 죄를 물리고 처벌을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데,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서 죄가 없는 황후와 황태자에게 동정을 하며, 후지와라(藤原)씨의 음모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후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후지와라(藤原)씨의 음모와 계략은 점점 도를 더해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희생자가 많아지게 된다. 결국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승자에 대해, 음모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정치적 패자가 된 희생자들의 원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 심리가 조장되고, 정치적 희생자들의 원한과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적인 승자로서도 그 복수와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런 사회적 배경들은 어떤 병이나 재앙, 죽음 등이 있을 경우, 그를 정치적 원한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원령이 씌여서 저주를 내리는 것이라는 소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 더하여 점쟁이들까지 정치적 원한에 의한 재앙이나 병이라고 점괘를 내리게 된다. 또 결정적인 원인은 병자에 씌어 있다가, 영매에게 옮겨가 정체를 드러낸 영(靈)들에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정치적 패배자인 누구누구라고 칭하고, 그 원한 때문에 이렇게 원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 결국 이런 일들은 입과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고, 정치적 원한에 의한 원령을 두려워하는 사상은 귀족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눈 깜짝할 새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된 원령에 관한 미신은, 이윽고 고료에(御靈會)라는 종교행사로도 이어지게 된다. 고료에(御靈會)는 9세기 경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이를 정치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원령(怨靈)들이 가져오는 재앙이라고 믿고, 그와 같은 혼백을 달래어 재앙을 피하기 위해 행한 일종의 위령제(慰靈祭)였다.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영(靈)을 모시고 그 앞에 꽃이나 과일 등을 바치고, 그 앞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씨름이나 경마 등을 했었다. 이 행사는 매년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행해졌으며, 처음에는 지방이나 민간 차원에서 행해졌으나, 이후에는 조정에서도 국가적 행사로 행해지게 되었다.³⁾

결국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힘입어, 처음에는 귀족들의 정치적 원한관계에 의한 원령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전염병이나 정치적 원한관계가 없는 일반대중들의 병이나 죽음 재앙 등의 원인으로, 당시 사람들의 민간신앙 속에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2) 모노노케(物の怪)신앙에 대해

일본의 모노노케(物の怪)란 단어에 딱 맞아떨어지는 우리말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경우에 맞추어서 귀신, 도깨비, 유령 등으로 번역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 모노노케(物の怪)는, 일본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며, 특히 고대의 일본에 있어서는 일종의 민간신앙으로서 일상생활 속에 뿌리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노노케(物の怪)는 고대, 특히 헤이안(平安)시대에 있어서의 일본의 민간신앙과 풍속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이며, 당시에 쓰여진 많은 문헌들에서도 그 실체와 중요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모노노케(物の怪)란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사람에게 씌여서 괴롭게 하고, 병을 일으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일컬어지는 죽은 사람의 영, 산 사람의 영, 요괴 등의 종류. 또, 그런 것들이 씌여서 재앙을 내리는 것. 사악한 기운.’⁴⁾라고 되어 있다.

3) 1985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 제 13권

4) 日本大辞典刊行会.編, 1975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런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들의 영, 요괴 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상상 속의 존재들이다. 그러나 고대의 일본사람들은 이런 모노노케(物の怪)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모노노케(物の怪)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무서운 병이나 재앙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모노노케(物の怪)에 대처했었던 것이다.

모노노케(物の怪)신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모노노케(物の怪)의 어원을 보면,

원래 ‘모노노케(物の怪)’란 말은 ‘영혼의 병’이라는 의미였다. ‘모노(物)’는 영(靈) ‘을 말하며, 신(神)과 비슷하나 저급한 서물(庶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 저급한 정령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 일으키는 질병이, 모노노케(物の怪)인 것이다. 이후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영혼 그 자체를, 바로 모노노케(物の怪)라고 부르게 되어, 그것을 인간의 영(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⁵⁾

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래는 모노노케(物の怪)가 원인이 되어 일으키는 병을 모노노케(物の怪)라고 불렀지만, 이후에는 병의 원인이 되는 영(靈)을 구체적으로 모노노케(物の怪)라고 부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영(靈)의 종류에는 산 사람의 영(生靈), 죽은 사람의 영(死靈), 사람의 영이 아닌 정령(精靈) 등 수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죽은 사람의 영(靈)이다. 고대 일본의 문헌이나 기록 등을 보면, 모노노케(物の怪)로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은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사령(死靈)의 관념은, 영혼은 육체의 탄생과 함께 육체에 머물러, 죽음과 동시에 육체에서 떠나더라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일본인의 사생관(死生觀), 영혼관(靈魂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⁶⁾ 이런 죽은 사람의 영(靈)들은 일반적으로 원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 일가친척들에게 병이나 재앙, 죽음 등을 불러일으키는 공포의 대상으로서 믿어지고 있었고, 그런 구체적인 사연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위령제(慰靈祭) 등을 통해 그 영(靈)을 위로하는 일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모노노케(物の怪)의 대부분이 죽은 사람의 영(靈)이라고는 하지만 산 사람의 영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에게 썩여 병이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헤이안(平安)시대에 쓰여진 『오치쿠보모노가카리(落窪物語)』에는, 오치쿠보(落窪)의 계모가 어떻게든 생령(生靈)이 되어 대장군의 집으로 들어가 저 오치쿠보(落窪)에게 썩여 저주를 내리고 싶다며 몸부림치는 얘기가 나오는데⁷⁾, 이런 장면들은 다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저주하는 상대에게 가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민간신앙이 전제가 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영(靈) 뿐만이 아니고, 수령(水靈)이나 목령(木靈)의 정령 등도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모노노케(物の怪)를 대표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인간의 영(靈)이나 정령 등의 ‘영(靈)’이 대부분이지만, 아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영(靈)’ 이외의 ‘요괴’ 등도 역시 모노노케(物の怪)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요괴와 모노노케(物の怪)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요괴’란, 세상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 사물을 이해하고 질서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민속(民俗)사회의 사람들이 가지는 설명체계 이전에,

5) 折口信夫, 1955 「ものゝけ其他」『折口信夫全集』, 中央公論社, 제8권 319쪽

6) 1999, 『日本民俗大辞典』, 吉川弘文館, 872쪽

7) 1987, 『落窪物語』, 新潮社, 제 2권

그 체계로는 충분히 설명해 낼 수 없는 현상이나 사물이 출현했을 경우, 그와 같은 이해하기 힘든 것, 질서체계를 만들 수 없는 것을, 우선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를 ‘모노(物)’라고 불렀고, 그 출현의 징후를 모노노케(物の怪)라고 불렀었다.⁸⁾ 이와 같이 ‘요괴’란 것은 정체불명의 것을 의미하며,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와 맞닥뜨린 사람에게 신비롭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결과 ‘초자연’의 작용을 인정하게 만드는 현상, 사물을 널리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모노노케(物の怪)의 범위는 대단히 넓어서 사람의 영(靈), 정령, 요괴 등이 다 포함되며, 그런 것들이 출현해서 직접 인간에게 질병이나 재앙, 죽음 등의 나쁜 해를 끼칠 때, 그것을 모노노케(物の怪)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한가지, 이런 정치적인 배경과 같은 맥락으로, 모노노케(物の怪)가 민간신앙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에는 당시의 여성들과 일부다처제라는 제도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⁹⁾

당시 일본에서는 가요이혼(通い婚)이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집에 다니러 오는 형태였다. 이는 정식으로 결혼을 한 부인이건, 몰래 정을 통하는 애인이건 같은 식이어서, 결국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자기의 남자를 독점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이 아니고, 변심하기 쉬운 남자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로 인해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남자를 뺏긴 상대의 여자에게 질투, 저주와 원한 등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모노노케(物の怪)가 재앙을 내리는 대상에 여자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고대 일본의 수많은 문헌에서도 구체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헤이안(平安)시대에 쓰여진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¹⁰⁾의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는, 살아있을 때는 생령(生靈)으로, 죽어서는 사령(死靈)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연적(恋敵)이 되는 여성들을 중태에 빠뜨리거나 죽게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 이같은 예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이 일부다처제 속에서 갈대같이 떠도는 남자들의 마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불안함, 그리고 남자의 사랑이 자기에게서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을 때 그 여자에게 향한 질투와 원한에 찬 여성들의 마음이, 결국 상대방을 저주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이 떠나가 생령(生靈)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석인다고 믿게 되고, 또 그런 원한을 가지고 죽게 되면 원령(怨靈)으로 출현하게 된다고 믿게 한 것이다. 결국 당시 여성들과 일부다처제라는 제도는 사회에 만연했던 모노노케(物の怪)에 관한 신앙과 부합되어서, 모노노케(物の怪)가 민간신앙으로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3. 병의 치료에 관해

1) 주술과 기도

고대 일본사람들은 이렇게 질병이나 재앙 등의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모노노케(物の怪)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던 것일까. 당시의

8) 1983 「神と仏—民俗宗教の諸相—」『日本民俗文化大系』, 小学館, 제4권 345쪽

9) 服部敏良, 1980 『平安時代医学の研究』, 科学書院, 88쪽

10) 紫式部, 1992 『源氏物語』, 小学館

사람들은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하면, 의사를 부르거나 약을 써서 그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일은 드물었다. 대신에, 병의 원인이 되는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수행을 많이 한 수행자나 덕망 높은 승려 등을 불러서 주술이나 기도를 시킴으로서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려고 했고, 무사히 모노노케(物の怪)가 퇴치가 되면 병도 낫게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예는 당시에 쓰여진 각종 문헌에 많은 실례를 볼 수 있다.

요 며칠간 몸이 좋지 않고, 기침이 많이 나고 해서, 모노노케(物の怪)의 탓이 아닐까 하고 기도라도 해 보기 위해, 집은 좁고, 대단히 더운 때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산의 절로 갔다.¹¹⁾

이처럼 아주 무거운 병이 아니더라도, 좀 몸이 안 좋거나 가벼운 병이라도 나게 되면 당시에는 우선 모노노케(物の怪)의 탓으로 여겼던 것이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어, 수행자를 찾았으나, 예전에 있던 곳에는 없고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동안 대단히 기다렸는데, 간신히 찾아내어 기뻐하며 기도를 시키니, 요즈음 여러 군데의 모노노케(物の怪) 퇴치를 위해 피곤한 모양인지...¹²⁾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픈 사람이 생기면 당시에는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절이나 산으로 가서 승려나 수행자를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있는 승려나 수행자들은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기도를 담당해야 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이런 승려나 수행자들이 대단히 존경받고 권위있는 존재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승려나 수행자들은 평소에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힘든 수행을 해서, 영험의 능력을 기른다. ‘산악신앙’¹³⁾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산 속에서 수행을 한 승려나 수행자들의 주술과 기도는 더욱 영험이 있다고 믿어져서, 산악 수행은 헤이안(平安)시대 이후부터 대단히 번성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기의 기도에 의해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시켜 병을 낫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맡은 승려나 수행자들은 그만큼 심적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요하게 병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모노노케(物の怪)도 있기 마련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산시키지 못한 수행자가 비웃음을 당하거나, 그에게 책임이 돌아가거나 하기 때문에, 다들 필사적으로 기도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면 주술, 기도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주술이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壇)을 만들어서 본존(本尊)을 안치하고, 과자나 밥 등의 공물을 곁들여서, 양손의 손가락으로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인(印)을 봉하고, 다라니(陀羅尼)를 읊으며, 호마(護摩)를 태우는데, 호마(護摩)는 일체의 악업, 악한 일의 근원을 불태워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졌었다. 호마(護摩) 대신에 평지씨(芥子)를 태우는 일도 있었다. 기도는 호마단(護摩壇)의 수에 따라, 2단, 3단, 5단, 7단, 9단, 13단법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5단법이 가장 널리 행해졌다. 이 5

11) 1987 『蜻蛉日記』, 新潮社, 상권 応和2년, 47쪽

12) 1977 『枕草子 上.下』, 新潮社, 상권 71쪽

13) 고대부터 있던 신앙으로, 『風土記』『万葉集』에서는, 산은 물을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는 靈地, 死靈이 있는 他界, 신이 하늘에 오르는 장소라고 믿었던 것이다. (秋山虔 편, 2000 『王朝語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67쪽)

단법인 경우, 5개소에 단을 설치하고, 중앙에 부동명왕(不動明王)과 사방에 각각 다른 종류의 명왕(明王)들을 안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¹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자의 머리맡이나 병자가 있는 휘장의 밖에서, 바로 주술이나 기도를 행하는 예도 있었다. 헤이안(平安)시대에 쓰여진 여류 수필 『마쿠라노소시(枕草子)』의 본문에 이런 장면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인용해 보기로 한다.

안채에, 4척의 휘장을 두르고, 그 앞에 둥근 짚방석을 깔고, 40살 전후의 대단히 아름다운 스님이, 회색의 옷과 얇은 가사를 깔끔하게 입고, 옅은 주황색으로 물들인 부채를 써서, 계속 다라니(陀羅尼, 경의 이름)를 읊고 있다.

병자가 모노노케(物の怪)에게 썩여서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니, 모노노케(物の怪)를 옮길 영매로서, 덩치가 큰 동녀(童女)가, 생견(生絹)으로 만든, 색이 화려한 홑겹의 옷을 입고, 소매를 길게 늘어뜨리고, 얇은 채 무릎으로 밖으로 나와서, 옆쪽으로 세운 휘장의 옆에 앉아 있으니, 스님은 바깥쪽으로 몸을 틀어서, 색이 선명한 토코¹⁵⁾를 영매에게 들게 하여, 합장하여 읽는 다라니(陀羅尼)도 위엄스럽다.

옆에서 지켜보던 궁녀들도 많이 모여들어, 가만히 동녀(童女)를 지켜보고 있다. 이윽고 동녀(童女)가 몸을 떨기 시작하다가, 제 정신을 잃고, 승려가 주술을 하는 대로 효험을 나타내니, 그것도 부처님의 힘에 의한 것으로, 대단히 훌륭한 느낌이 든다.

영매가 된 동녀(童女)의 친척들도, 다들 출입을 허락받아 들어와 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여있는데, 만약 동녀(童女)가 제 정신이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할 것인가. 영매 본인은 괴롭지 않은 것이라고 알면서도, 대단히 괴로워하며 우는 모습이 보기에 안되어서, 영매의 친척들은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 옆에 앉아 옷매무새를 고쳐주거나 한다.

이러고 있을 때, 병에 좀 차도가 있어서, ‘약탕을’ 이라고 말한다. 북쪽 방으로 약탕을 치우러 갔던 젊은 사람들은, 이 쪽 일이 신경이 쓰여서, 약탕을 치우자마자 급히 되돌아 와서 지켜본다. 그런 궁녀들의 홑겹 옷 등은 무척 아름답고, 옅은 색의 모(裳)등도 색이 바래지 않은 것이 깔끔하다.

모노노케(物の怪)에게 죄를 빌라고 하여 잔뜩 사과의 말을 시키고, 승려가 주술을 조금 풀어주었다. 정신을 차린 동녀(童女)는 ‘휘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휘장 밖으로 나와버렸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라고 부끄러워하며,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니, ‘잠시 그대로 있거라’ 라고 하고, 승려가 주술을 조금 더 하고, ‘어떻습니까? 기분은 좋아지셨습니까?’ 라고 웃으며 병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대단히 훌륭해 보인다. (중략)....

‘대단히 집요한 모노노케(物の怪)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놓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 거의 다 나으셨으니, 축하드립니다’ 라고 자제하여 말하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영험있게 보여서, 마치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¹⁶⁾

이와 같이 당시에는 병의 치료, 의사나 약보다는 거의가 주술과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잘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예를 들면 11세기 경에 쓰여진 역사소설 『에가모노가타리(榮花物語)』¹⁷⁾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죽음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하게 등장하는 83년간의 기록 중, 질병의 치료에 의약을 복용한 예는 4개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가 수행자나 승려에게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는 주술이나 기도를 시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14) 服部敏良, 1980 『平安時代医学の研究』, 科学書院, 56쪽

15) 独鈷, 스님들이 기도에 쓰는 도구의 한 가지. 길이는 7, 8척 정도로 銅 또는 철제로 양끝을 검(劍)의 모양으로 만듦.

16) 1977 『枕草子 上.下』, 新潮社, 1本23단, 하 268쪽

17) 1995 『榮花物語』, 小学館

또 개인의 병뿐만이 아니고, 국가나 조정에서 전염병이나 각종 재앙이 있을 경우, 대규모로 주술과 기도를 시켜 그를 치유하고자 했던 예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듯이 질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개인뿐 아니고 국가 단위로 주술과 기도예 의해 그 치유를 하려고 했던 것은, 고대 일본의 큰 특징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모노노케(物の怪)가 민간신앙으로서 당시 사람들의 사상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나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예이다.

2) 영매의 중요성

앞에서 『마쿠라노소시(枕草子)』에 나타난 주술과 기도의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영매’가 등장했었다. 일본에서 ‘요리마시’라고 하는 이 영매는,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기 위한 주술과 기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이다. 영매가 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수행자나 승려들은 영혼이 옮겨가기 쉬운 영매로서 주로 동자(童子), 또는 동녀(童女)를 대기시켜 두었다가, 병자의 옆에 기도의 단을 마련하여, 향을 피우고, 아미타불이나 경을 읽어서, 그 법력에 의해 병자에게 씌여있는 모노노케(物の怪)를 영매에게 옮겨가게 한다. 영매는 영(靈) 등에 씌이게 되면, 마치 최면술에 씌인 것처럼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영(靈) 그 자체가 된 것처럼 울부짖거나, 광기어린 행동을 하거나, 나는 이런이런 것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에게 씌인 것이니,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면 떠나겠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모노노케(物の怪)가 떠남과 동시에 병자는 기분이 좋아지고, 영매도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다.¹⁸⁾

이렇듯 영매란 것은 모노노케(物の怪)를 병자에게서 옮겨가게 하는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영매로 쓰인 사람들은 기도가 시작되면 병자의 옆 방, 또는 같은 방의 구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술과 기도예 의해 모노노케(物の怪)가 자기에게로 옮겨가면, 신이 들린 것처럼 평소에 하지 않은 광기어린 행동을 하거나, 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목소리(병자에게 씌인 모노노케의 목소리)로 저주와 원한의 말을 내뱉거나 한다. 그러나 병자에게서 모노노케(物の怪)가 퇴산함과 동시에 제 정신으로 돌아오고, 신기하게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영매로 선택되는 것은 주로 15세 이하의 동자(童子)나 동녀(童女)가 많은데, 그 이유는 타계(他界)와 연결시키는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7세 이전은 신(神)의 아이’라는 말이 일본의 민속학 상에 남겨져 있듯이, 이빨이 완전히 다 나기 전의 유아는 신(神)이 가까운 존재로 생각되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나 주술을 위한 영매로 선택되는 것이 주로 동자(童子)나 동녀(童女)인 것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영매는 주술과 기도예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존재였고, 그 역할도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영매를 잘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기도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영매’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병자를 평소부터 모시고 있는 하녀나, 어린 동자(童子)가 선택된다. 그들은 가정내의 사정을 평소부터 잘 알고, 병자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원한을 사고 있는지 등을 잘 알고, 항상 이것을 두려워해 온 사람들이고, 또 병자의 평소의 격정거리, 괴로움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 ‘영매’에, 가정의 사정도 모르고, 병자가 받은 만한 원한 관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하면, 영매에 모노노케(物の怪)가 옮겨갔을 때의 원언(怨言)은 대단히 골계(滑稽)적인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 ‘영매’를 잘 선정하는 일

18) 玉上琢弥, 1973 『源氏物語評釈』, 角川書店, 제 2권 398쪽

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영매를 잘 선정함으로써 승려는 기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있고, 병자의 신뢰감도 한층 두터워짐은 당연한 것이다.¹⁹⁾

이렇게 영매를 병자의 측근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한 편으로는 기도의 효과를 노려서 현세의 이익(利益)을 직접 민심에게 심으려고 하는 불교의 수단이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모노노케(物の怪)에게 더더욱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일종의 극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영매’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 또는 아주 많은 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주술과 기도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 영험이 있다고 하는 승려나 수행자들을 있는 대로 다 불러모아서 주술과 기도를 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그런 경우, 승려나 수행자들이 각자 자기가 선택한 영매를 곁에 두고 기도를 해서 모노노케(物の怪)를 옮기려고 하므로, 그런 경우는 영매가 대단히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기 위한 주술과 기도에서는, ‘영매’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노노케(物の怪)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매를 통하지 않고 모노노케(物の怪)가 꿈이나 사람들의 앞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영매를 통하지 않고 바로 병자의 입을 통해 모노노케(物の怪)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기 위해서 기도와 주술이 행해졌고, 그런 경우에는 영매도 반드시 등장했었으며, 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4. 문헌에 보이는 병

1) 병의 구체적인 예

헤이안(平安)시대의 문헌을 보면, 모노노케(物の怪)가 원인이 되는 병은 대단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장님이나 병어리, 귀머거리, 소아마비 등의 장애부터 시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감기나 조금 몸이 안 좋은 정도의 증상,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의 병, 최악의 경우는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모노노케(物の怪)도 대단히 많았다. 물론, 몸 자체에는 별 이상이 없는 정신병이나 신경질환 등에도 해당이 되며, 학병(癩病)이라고 하여 지금의 말라리아에 해당되는 전염병, 또 1025년에 발생하여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홍역 등의 원인으로도 생각되어졌었다.

당시에 쓰여진 각종 문헌들을 보면, 이런 병들은 「풍병(風病)」, 「촌백(寸白)」, 「음수병(飲水病)」, 「이금(二禁)」, 「학병(癩病)」, 「복병(腹病)」, 「흉병(胸病)」 등의 구체적인 이름으로도 표현되었었고, 당시 사람들이 병이라면 무조건 모노노케(物の怪)라고 막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병의 ‘원인’으로서 단연 손꼽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노노케(物の怪)였고, 다른 어떤 병보다도 가장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것이었다.²⁰⁾

모노노케(物の怪)의 흥미로운 성질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성질’이다. 예를 들어, 현대

19) 服部敏良, 1975 『王朝貴族の病状診断』, 吉川弘文館, 46쪽

20) 服部敏良, 1980 『平安時代医学の研究』, 科学書院, 80쪽

에 있어서도 전염병 등은 사람에게 ‘ 옮기는 것’이며, 감기 등도 다른 사람에게 ‘ 옮기는’ 성질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 이는 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공기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처럼 당시에는 모노노케(物の怪)도 병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병자의 근처에는 출입을 가능한 삼가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믿어지고 있었다. 특히 모노노케(物の怪)는 여자나 임산부, 아이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등 비교적 ‘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옮기기 쉽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 병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했으며, 부모가 병이 났을 경우, 아이들은 일부러 병자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처소를 옮기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모노노케(物の怪)가 일으킨 수많은 병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 풍병(風病)’이라고 하여, 지금의 감기와도 같은 병을 일으키는 모노노케(物の怪)도 있었다. 이 풍병(風病)은 비교적 여러 문헌에서 많이 보이는 병명으로, 그 원인은 물론 분명치 않았으므로, 당시에는 막연히 모노노케(物の怪)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었다. 『에가모노가타리(栄花物語)』에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전하가 점점 몸이 편찮으시니, ‘ 풍병(風病)일 것이다’ 라고 하고, 온욕(溫浴)을 하시고, 약을 드시고, ‘ 독경을 할 승려들을 빠짐없이 불러모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니,²¹⁾

그러나 문헌에 보이는 수많은 풍병(風病)이 다 지금의 감기와 같은 것은 아니며, 대단히 광범위의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중풍과도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을 풍병(風病)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고, 감기나 중풍과도 전혀 다른 증상의 병을 풍병(風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 풍병(風病)의 경우는 치료법도 가지각색으로, 약을 쓰거나 온욕(溫浴)이나 냉탕(冷湯)요법을 쓰거나 하는 경우도 부수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기 위한 기도를 올리게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 눈병’을 일으키게 하는 모노노케(物の怪)도 있었다. 산조인(三条院)천황은 상황(上皇)이 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눈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손을 써 봤지만, 전혀 그 효과가 보이지 않았으나, 드디어 거기에 모노노케(物の怪)가 정체를 드러낸다. 그 모노노케(物の怪)는 공봉승(供奉僧)의 사령(死靈)으로, ‘ 상황의 목에 올라서서, 좌우의 날개를 파닥거리니, 그렇게 날개를 움직일 때 조금씩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²²⁾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승려나 수행자 등도 죽어서 성불하지 못하여 모노노케(物の怪)가 되어 사람들을 병이나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는 입장인 승려나 수행자가, 죽어서 모노노케(物の怪)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지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가끔 이런 경우도 보인다. 어쨌건 눈병의 증상에 대해, 모노노케(物の怪)가 사람의 목에 붙어서 좌우의 날개를 움직일 때마다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산조인(三条院)천황의 경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천황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의사들과 약을 썼다는 기술이다. 당시에는 병의 원인이 모노노케(物の怪)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

21) 1995 「たまのむらぎく」『栄花物語』, 小学館

22) 1985 『大鏡』, 小学館, 상권 69쪽

에 그 병을 낮게 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하기 위한 주술과 기도였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약이나 의사들의 처방도 부수적으로 쓰였던 것이다.

산조인(三条院)천황은 눈병 이외에도, 원래 만성 신경질환²³⁾이 심했다고 한다. 그 병들을 낮게 하기 위해 효험이 있다는 승려와 수행자들을 다 불러모아 주술과 기도를 시키나 별 효과가 없자, 의사와 약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다. 의사들이 병을 낮게 하기 위해 쓴 방법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의사들이, ‘대한(大寒)과 소한(小寒)의 물을 머리에 붓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 올리니, 뽕뽕 얼은 물을 머리에 많이 끼얹어서, 부들부들 대단히 몸을 떠시고, 안색도 창백해지시니, 그 모습을 정말 가련하고도 슬픈 마음으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²⁴⁾

이와 같이 신경 질환을 낮게 하기 위해, 추운 계절에 뽕뽕 얼은 물을 머리에 끼얹었으니, 이런 방법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없던 병도 생길 정도로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그만큼 의학지식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처방이 결코 웃음거리가 아닌, 병을 낮게 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또 이 산조인(三条院)천황은 병 때문에 ‘금액단(金液丹)’이라는 약을 복용했다는 기술도 있어, 모노노케(物の怪)의 퇴치 이외에도 병을 낮게 하기 위해 당시에 쓰여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관련된 모노노케(物の怪)의 예도 있다. 레제(冷泉)천황은 어릴 때부터 모노노케(物の怪)에 쫓여 정신병 증세가 심한 것으로 유명하다. 레제(冷泉)천황은 일반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이한 성격과 용모로, 사람을 대하거나 말을 하는 목소리 등도 보통의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불길하고 무서운 인상으로, 가지가지의 광적인 행동을 보여, 사람들의 동정과 걱정을 샀다. 천황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증세는 낫지를 않고, 병에 걸려 중태인데도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죽을 때까지 심한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²⁵⁾ 후술할 예정이지만, 이는 후지와라 모토가타(藤原元方)라고 하여, 정치적 관계의 원한을 가진 모노노케(物の怪)가 쫓여서 그런 것이라고 믿어졌다.

또한 이 레제(冷泉)천황의 아들인 가잔(花山)천황도 역시 정신병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보통사람과는 다른 가지가지의 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같은 정신병의 증세도 역시 원한관계에 의한 모노노케(物の怪)가 쫓여서 그런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호리카와(堀河)천황이 병에 걸려 붕어하기까지의 경과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사누키노스케 닛키(讃岐典侍日記)』²⁶⁾에 의하면, 호리카와(堀河)천황이 1107년 6월 20일경부터 심한 흉병(胸病)에 시달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병은 승려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경을 읽게 해도 전혀 차도가 없었는데, 천황을 괴롭히던 많은 모노노케(物の怪) 중에서 승정(僧正)의 사령(死靈)이 둘 나타나서, 작년의 천황의 행차 이후 한 번 더 행차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 보람도 없이 전혀 행차가 없는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해서 모노노케(物の怪)로 나타났다고 하는 장면이 있다. 결국 흉병(胸病)과 여러 병이 겹쳐, 호리카와(堀河)천황은 7월 19일 붕어하게 된다.

23) 이를 감기 증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服部敏良, 1975 『王朝貴族の病状診断』, 吉川弘文館, 9쪽

24) 1985 『大鏡』, 小学館, 상권 69쪽

25) 1995 『栄花物語』, 小学館, 35쪽

26) 1985 『讃岐典侍日記』, 小学館

이처럼 모노노케(物の怪)는 갖가지 병의 원인으로서, 고대 일본의 문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치적 원인과 관련된 병의 예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의 모노노케(物の怪)의 신앙은 특히 정치적인 원한 관계로 인해 빈번히 나타나는 데 그 특징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정치적 원한에 의한 모노노케(物の怪)의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후지와라 모토카타(藤原元方)의 원령(怨靈)이다. 이 모토카타(元方)는 물론 실존인물로, 그의 모노노케(物の怪)도 물론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믿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씌여서 갖가지 재앙과 병과 죽음을 불러일으킨, 실로 무시무시하고도 집요한 원령(怨靈)으로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간단히 이 후지와라 모토카타(藤原元方)가 모노노케(物の怪)가 된 경위와 재앙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무라카미(村上)천황의 후궁이 된 모토카타(元方)의 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때는 동궁(東宮)이 없었기 때문에, 모토카타(元方)는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이 동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육고 우대신(右大臣)의 딸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게 되자, 모토카타(元方) 부녀는 이를 대단히 분하게 생각하여 횡병을 앓게 된다. 결국 우대신(右大臣)의 딸이 낳은 아들이 동궁이 되게 되자, 모토카타(元方)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앓아 누울 만큼 분해 하다가 병을 얻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 모토카타(元方)의 딸과 그 아들까지 차례로 죽게 된다.

이 후, 그 탓인지 동궁이 된 우대신(右大臣)의 손자는 어릴 때부터 모노노케(物の怪)에 씌여 천황이 된 이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 이 우대신(右大臣)의 손자가 바로 앞에서 설명한 레제(冷泉)천황인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고, 레제(冷泉)천황의 어머니, 즉 우대신(右大臣)의 딸도 임신을 하게 되나, 모토카타(元方)의 모노노케(物の怪)에 대단히 고통받다가, 결국 아들을 낳고 어이없이 죽어버리게 된다.

또 모토카타(元方)의 모노노케(物の怪)가 불러오는 재앙은, 레제(冷泉)천황의 아버지인 무라카미(村上)천황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무라카미(村上)천황이 전에 없이 심하게 병을 앓아,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술로 모노노케(物の怪)를 불러내어서 말을 시켜보니, 천황에게 씌인 것이 바로 모토카타(元方)의 원령(怨靈)임을 알게 된다.

모토카타(元方)의 모노노케(物の怪)의 저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레제(冷泉)천황의 후궁인 초시(超子)가 행사가 있어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잠든 채로 어이없이 죽어버린 사건이 생긴다. 이 역시 모토카타(元方)의 모노노케(物の怪)의 탓이라고 되어있다.²⁷⁾

결국 원한을 품고 죽은 이 모토카타(元方)의 모노노케(物の怪)는, 자기의 딸이 낳은 아들 대신에 천황이 된 레제(冷泉)천황과, 그 천황의 아버지, 어머니, 부인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씌여서 무서운 재앙을 내린 것으로, 이는 당시의 모노노케(物の怪)를 대표하는 원령(怨靈)으로 유명하다.

또 이 모토카타(元方)의 모노노케(物の怪)에 지지 않을 만큼 유명한 모노노케(物の怪)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리카와(堀河)대신과 그의 딸 엔시(延子)의 원령(怨靈)이다. 우선, 이들이 모노노케(物の怪)가 되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엔시(延子)의 남편이던 아쓰아키(敦明)친왕이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책략에 의해 동궁(東宮)을 퇴위 당하게 된다. 게다가 옆친 데 옆친 격으로, 동궁을 퇴위한 아쓰아키(敦明)친왕이, 자기를 퇴위시킨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딸인 간시(寛子)와 결혼을 해 버린 것이다. 아쓰아키

27) 1995 『荣花物語』, 小学館, 「花山たづぬる中納言」 110쪽

(敦明)친왕은 엔시(延子)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화려한 생활이 보장되는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딸에게 마음이 끌려, 결국 엔시(延子)을 거의 찾지 않게 된다. 결국 엔시(延子)는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에 의해 남편이 동궁(東宮) 자리를 퇴위 당하고, 그 남편마저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딸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다. 이를 슬퍼하고 원통해하며 앓아 누웠던 엔시(延子)가 요절을 하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던 호리카와(堀河)대신도 뒤를 쫓듯 죽게 된다.

원한을 품고 죽은 이 두 사람은 모노노케(物の怪)가 되어, 우선 생전에 남편을 빼긴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딸, 간시(寛子)에게 씌이게 된다. 호리카와(堀河)대신 부녀의 원령(怨靈)이 씌인 간시(寛子)는, 병을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임종 전에 호리카와(堀河)대신 부녀의 모노노케(物の怪)가 등장하여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나’라고 소리친다.²⁸⁾ 그 무렵, 간시(寛子)의 여동생에 해당되는 손시(尊子)도 같은 모노노케(物の怪)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리카와(堀河)대신 부녀의 모노노케(物の怪)가 씌인 것은,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딸이며, 아쓰아키(敦明)친왕이 동궁(東宮)에서 퇴위당한 후, 동궁자리에 오른 아츠요시(敦良)친왕의 부인인 기시(嬉子)이다. 호리카와(堀河)대신 부녀의 모노노케(物の怪)가 기시(嬉子)에게 씌일 것은, 간시(寛子)의 임종 때 나타난 호리카와(堀河)대신의 원령(怨靈)에 의해서 예고된 일 이었고, 결국 기시(嬉子)는 출산 후 3일만에 죽고 만다.

호리카와(堀河)대신 부녀의 모노노케(物の怪)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엔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딸이며, 산조(三条)천황의 중궁인 겐시(妍子)에게도 씌여, 원인도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게 한다.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는, 유명하다는 승려와 수행자들을 불러모아, 주문과 기도 등 백방으로 손을 써 봤지만, 그 보람도 없이 결국 겐시(妍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다음으로 호리카와(堀河)대신 부녀의 모노노케(物の怪)가 나타난 것은, 고이치조(後一条)천황이 임종을 눈 앞에 두고 있을 때이다. 고이치조(後一条)천황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중태에 빠졌을 때 나타난 여러 모노노케(物の怪)중에는, 이 호리카와(堀河)대신의 모노노케(物の怪)도 있었다. 호리카와(堀河)대신의 모노노케(物の怪)가 고이치조(後一条)천황에게 씌인 이유는, 고이치조(後一条)천황이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리카와(堀河)대신의 모노노케(物の怪)는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딸 - 간시(寛子), 손시(尊子), 기시(嬉子), 겐시(妍子) - 의 4명과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손자 - 고이치조(後一条)천황 - 에게 씌여, 병을 일으키거나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등의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으로 생각되는 것은, 호리카와(堀河)대신 부녀의 가장 큰 원한의 대상이라면, 역시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일텐데, 거기에는 직접 씌여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딸들과 손자 등에 간접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있는 점이다. 이는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만큼, 자연히 역사서나 기록들도 그의 초인적인 점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에 그 원인이 있으며, 또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는 부처의 가호가 두터워 모노노케(物の怪) 등이 씌일 수 없다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호리카와(堀河)대신의 모노노케(物の怪)는, 비록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에게는 직접 씌일 수 없다고 해도, 그의 딸과 손자 등에 무서운 재앙을 내림으로써, 간접적으로 후지와라 미치

28) 1995 『栄花物語』, 小学館, 「みねの月」482쪽18) 玉上琢弥, 1973 『源氏物語評釈』, 角川書店, 제 2권 398쪽

나가(藤原道長)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에는 정치적 원함과 관련된 모노노케(物の怪)의 예가 수없이 많으며, 그런 원령(怨靈)들이 원인이 되는 병이나 재앙 등도 수없이 많다. 이런 구체적인 예들은, 당시의 귀족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모노노케(物の怪)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실감과 함께, 더더욱 공포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 헤이안(平安)시대를 중심으로 고대 일본의 병에 대한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고대 일본에서는 고료(御霊)신앙으로 인해, 고대 사람들에게 병이란 것이 신앙으로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정착되어, 일본만의 독특한 경향을 띠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모노노케(物の怪)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병에 대한 인식이 단순했던 당시에도 문헌에 보이는 병명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병에도 적용이 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모노노케(物の怪)’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의사란 직업이 있었고, 또 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모노노케(物の怪)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고대 일본의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행자나 승려 등이 주술과 기도를 해서 그 모노노케(物の怪)를 퇴치시키는 것이 병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고대 일본의 병에 대한 인식과 그 양상은 현대와는 대단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参考文献 】

- .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編(1985)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 제 6권, 제 13권
- . 黒板勝美. 国史大系編修会編(1966) 『日本三代実録』(「新訂増補国史大系四」), 吉川弘文館, 326쪽
- . 日本大辞典刊行会編(1975)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 . 折口信夫(1955) 「ものゝけ其他」 『折口信夫全集』, 中央公論社, 제8권 319쪽
- . 福田アジオ 他(1999) 『日本民俗大辞典』, 吉川弘文館, 872쪽
- . 稲賀敬二 校注(1987) 『落窪物語』, 新潮社, 제 2권
- . 宮田登 他(1983) 「神と仏—民俗宗教の諸相—」 『日本民俗文化大系』, 小学館, 제4권 345쪽
- . 服部敏良(1980) 『平安時代医学の研究』, 科学書院, 88쪽
- . 秋山虔 他校注(1992) 『源氏物語』, 小学館
- . 犬養廉 校注(1987) 『蜻蛉日記』, 新潮社, 상권 応和2년, 47쪽
- . 萩谷朴 校注(1977) 『枕草子 上. 下』, 新潮社, 상권 71쪽
- . 秋山虔 編(2000) 『王朝語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67쪽
- . 玉上琢弥(1973) 『源氏物語評釈』, 角川書店, 제 2권 398쪽
- . 服部敏良(1975) 『王朝貴族の病状診断』, 吉川弘文館, 46쪽

- .山中裕 校注(1995) 『棠花物語』, 小学館
- .橘健二 校注(1985) 『大鏡』, 小学館
- .石井文夫 校注(1985) 『讃岐典侍日記』, 小学館

K C I

A Study on the disease of Ancient Japan

Kim, Hyun-jung

ABSTRACT

In ancient Japan when medical science and science were not developed, the names of diseases left in the documentary records were not many because of the lack recognition of diseases. People in ancient Japan depended much upon the folk beliefs in the recognition of diseases and they depended upon the folk beliefs rather than the doctors or medicines in the matter of treatment. Although the names of diseases expressed in the documentary records were not a few, even in the ancient times of the lack recognition diseases, 'Mononoke' which could be applied to any kind of diseases stroke the terrors into the peoples' hearts. 'Mononoke' was widely used just like the pronoun of diseases from a slight symptom of disease to a fatal disease or a contagious disease. Even in ancient Japan there were doctors and many kinds of medicines, but people who recognized the cause of a disease as 'Mononoke', a phenomenon of nature, believed that in order to treat a disease to conquer 'Mononoke' was the most effective method through the spells and prayers of ascetics or monks. When there happened to be a patient, he looked for an ascetic or a monk instead of a doctor or medicines. Therefore, people in ancient Japan thought the spells and prayers the best methods to treat diseases.

주제어 : 고대 일본, 병, 모노노케(物の怪), 고료(御霊) 신앙, 모노노케(物の怪) 신앙, 주술과 기도, 영매

투 고 : 2002. 11. 26
2차 심사 : 2002. 12. 14
3차 심사 : 2003. 1. 14

住 所 : (323-812)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양학과
電 話 : 041-830-7373
E-mail : sirayuki@hanmir.com

KCS I